

전력기술문화창달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



회장 안인순

존경하는 이회법 산업자원부 자원정책
실장님!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장정곤 이사
장님을 비롯한 유관 단체장님과 내외 위
민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저희 정기총회행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협회 발
전을 위하여 진력해 주신 전국의 대의원
과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
립니다.

우리 나라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우리
전력산업제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지난 2월 19일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자격증 대역와 토
지 매입사건은 우리 전력기술인들에게 너
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부임한 후 1년동안 나름
대로 협회의 위상제고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당면하고 보니 참으로 참담한 심
정입니다.

이 모두가 저의 부덕한 소치로 알고 여
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도 시간이 지나면
봄이 오듯 이러한 어려움도 슬기와 지혜
를 가지고 잘 대처하면 보다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
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지금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추
구하는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체제로서 자
유경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 살아 남으려면 과감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기

술과 신지식을 부단히 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력기술인들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기술과 신지식 제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과 회원 여러분!

우리 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은 전력산업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대부사업 등 전력부문은 많은 변화와 함께 하여야 할 일들이 산적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전력산업계의 단결과 화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력산업계가 작년 1년동안에 과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풍토가 조성된 것으로 금년에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전력산업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우리 협회가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제가 지난 1년동안 협회와 회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다마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하여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해온 일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기술인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협회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는 회원 각자가 자기 업역의 이익보다는 전력산업계 전체를 위해서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 여러분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회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그리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을 건의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회원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협회 제5차 정기총회가 전력기술문화창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귀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협회의 정기총회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국의 대의원 및 회원 여러분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 2. 23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안 인 승